

창세기 세번째 메일

창세기 4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있다. 이원리는 인간의 한정된 지식으로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있지만 이 오묘한 원리는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도대체 이원리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절대적 권위로 우리를 강요해서 선을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악' 에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데 마치 주인이 소를 강가로 끌고 갈수는 있어도 소가 물을 먹는 것은 소의 권리요 선택인 것과도 같다. 먹으면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되어 선을 행한 것이고 안먹고 돌아서면 거역하여 악을 행하게 되는것과도 같다. 생각해 보라! 최초의 인간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를 옆에두고도 왜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 를 따 먹었는지 모르겠는가? 죄는 우리의 선택으로인해서 '죄' 로 확정 되는 것이지 죄가 있어도 죄에 끌려 가지 않으면 '죄' 는 사람을 지배 할수가 없다.

가인과 아벨에 적용하면 두사람은 모든 것이 동등한 가운데서 출생했다. 둘다 모두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인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했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수 있었다. 한사람은 농사 일을 했고 다른 한사람은 목축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고 충고하셨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권면하셨다 (창 4:7).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제사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고 평가하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사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아벨이 선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또한 제사를 받아 주지 않았다고 가인이 선을 행하지않았다 고도 말씀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은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가인이 제사로인해서 극도로 분해하며 안색이 변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를 엄중히 경고 하셨을 뿐이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담아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할수가 없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미 가인의 마음은 선을 택하기에 너무 멀어져 있었다. 다시말해서 최초의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상태에서 더 멀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가인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달려 가고 있었다. 그만큼 자기중심이 더 강해졌다. 그로인해 하나님은 그가 큰 죄악을 범할 것을 내다 보신 것이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고 권면 하셨지만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문앞에 다다른 죄를 다스리지 못한것이다. 가인은 자신중심의 감정에 깊이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동생 '아벨' 을 죽인 것이다. 이것이 정말 '죄' 다.

우리에게 '생명나무' 에대한 인식이 있어도 그것을 매일 바라 보아도 '나 자신의 욕망과 오염된 감정들을 '생명나무' 에 묶어 두지 못하는 한 우리도 가인과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너의 감정에 얽매어 얼굴의 안색이 변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로 감이 어찌 됩이뇨?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따라 나를 향한 죄가 정말 '죄' 가 되기도하고 죄를 다스리기도 하는것이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수 없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한다. 우리가 다스려야할 죄를 아벨이나 하나님께 넘기지 말라! 마음아 죄를 이겨라! -아멘-